



東 · 亞 · 文 · 化 · 44

## 杜審言詩研究

宋 龍 準

1. 緒言
2. 杜審言詩의 내용
3. 杜審言詩의 가치와 위상
4. 結語



# 杜審言詩研究

宋 龍 準\*

## 1. 緒言

杜審言은 후에 洛陽丞으로 갔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吉州 司戶參軍으로 좌천되었다. 그는 吉州에서 동료와 불화하여 司馬 周季重과 司戶 郭若訥이 그를 무고하는 바람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 때가 대략 儀鳳年間(678년 전후)이었는데,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그의 맏아들 杜并이 周季重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칼로 찔러 죽였는데, 杜并도 그 때 周季重 주위에 있던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周季重은 죽음에 임하여 “심언에게 효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 약년이 고의로 나를 그르친 것이다……”<sup>1)</sup>라고 말하였다. 두심언은 이 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 洛陽으로 돌아갔다.

두심언은 낙양으로 돌아간 후, 대략 武后 垂拱年間(688 전후)에 武則天이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여 임용할 마음을 먹고 “그대는 기쁜가?”라고 물으니 두심언은 기뻐서 춤을 추며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명을 받

---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審言有孝子, 吾不知, 若訥故誤我…….”

들어 <歡喜詩>를 한 수 썼다. 武后는 그의 詩才를 높이 평가하여 著作郎에 임명했는데, 그 후 곧 膳部員外郎으로 옮겼다. 그가 武后 시절에 적지 않은 應制詩를 썼기 때문에 당시에 “두심언은 시로, 閻丘均은 글씨로 함께 武后를 모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中宗 神龍 初(705 전후), 그는 당시 권세를 누리고 있던 張易之 형제와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峰州로 유배되었다. 이 때 그가 湘江을 건너면서 쓴 것이 바로 <渡湘江>시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는 長安으로 소환되어 國子監主簿와 修文館直學士가 되었다. 그리고는 景龍 2년(708)에 향년 63세로 죽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두심언의 병이 위중했을 때 宋之問과 武平一이 그에게 병문안 가서 병세가 어떠냐고 물으니 그는 “아직 괜찮소. 내가 살아있으면서 오랫동안 당신들을 압도했으니 오늘 내가 죽는다면 당신들에게는 응당 위로가 되겠지요. 다만 나를 이어줄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안하무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 大學士 李嶠등이 주청하여 著作郎에 추증되었다.<sup>2)</sup>

文章四友 중에서는 두심언 詩文의 성취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문학적 가치가 비교적 떨어지는 應制詩를 제외하고, 寫景 · 紀游 · 贈懷의 시편은 왕왕 형상이 선명하고 질박하고 자연스러우며 음절이 맑게 울려서 기본적으로 齊 · 梁의 여풍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宋 陳振孫은 <直齋書錄解題>에서 “唐 초기의 沈佺期 · 宋之問 이래 율시가 비로소 성행했지만 아직은 평측의 불규칙을 꺼리지 않았다. 두심언은 시가 많지는 않지만 句律이 지극히 엄격하여 失黏한 것이 하나도 없다. 杜甫의 家傳은 여기서 비롯되었다”<sup>3)</sup>라고 하였고, 明 胡震亨은

2) 이상 杜審言의 생애와 관련된 것은 《中國歷代作家小傳》 <杜審言小傳>을 정리한 것이다.

《唐音癸籤》에서 “唐初에는 칠언율시가 없었고 오언도 아직 출중한 것이 없었다. 2體의 묘는 두심언이 실로 창도했다”<sup>4)</sup>라고 하였고, 淸 王夫之도 《薑齋詩話》에서 “근체시는 梁 · 陳 때 이미 있었지만, 두심언에 이르러 비로소 법도에 맞게 되었다”<sup>5)</sup>라고 했는데, 이 모두는 唐代 近體詩의 형성과 발전에 두심언이 중요한 공헌을 했음을 설명해준다.

## 2. 杜審言詩의 내용

두심언은 전력을 기울여 근체시를 지은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그의 시는 모두 43수인데<sup>6)</sup>, 이것을 다시 형식 별로 분류해보면 오언율시 28수, 오언배율 7수, 칠언율시 3수, 칠언절구 3수, 古體詩 2수 이어서 근체시의 비중이 95%에 달한다. 이는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여서 初唐 시기가 율시의 형성 단계임을 감안해볼 때 대단히 특출한 경우이다. 그의 시를 내용 별로 살펴보면 應制詩, 寫景詩, 紀行詩, 抒情詩, 交遊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應制詩

3) “唐初沈宋以來，律詩始盛行，然未以平側失眼爲忌。審言詩雖不多，句律極嚴，無一失黏者。甫之家傳有自來矣。”

4) “唐初無七言律，五言亦未超然，二體之妙，杜審言實爲首倡。”(卷5)

5) “近體，梁陳已有，至杜審言而始叶于度。”

6) 이 중 五言律詩 <和晉陵陸丞早春游望>은 宋 吳曾의 《能改齋漫錄》，魏慶之의 《詩人玉屑》，胡仔의 《苕溪漁隱叢話後集》에서 韋應物的 작품이라고 지적하였지만 위응물의 문집에 들어있지 않고 《文苑英華》에는 명백히 두심언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현존하는 두심언의 응제시는 모두 9수인데, 그 중에서 오언율시가 6수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칠언율시 2수와 오언배율 1수이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 짓는 응제시의 성격상 두심언의 응제시도 황제와 황실의 덕을 찬양하고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다음 시를 보자.

<蓬萊三殿侍宴奉敕詠終南山應制>(봉래삼전의 연회에서 황명을 받들어 종남산을 읊다)

北斗挂城邊	북두성은 성 가장자리에 걸려 있고
南山倚殿前	남산은 궁전 앞에 기대어 서 있다.
雲標金闕迥	구름 위의 금빛 궁궐은 멀리 있고
樹杪玉堂懸	나무 끝에 옥당이 걸려 있는 듯하다.
半嶺通佳氣	산허리는 아름다운 기운이 통하고
中峰繞瑞煙	중봉은 상서로운 안개가 감싸고 있다.
小臣持獻壽	소신이 축수의 잔을 들어 바치오니
長此戴堯天	만수무강하여 태평성대를 누리소서.

이 시의 창작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8세기 초에 則天武后에게 바친 작품일 것이다. 시인은 여기서 장엄하고 화려한 궁궐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답고 상서로운 자연환경을 묘사한 다음 마지막 연에서 황제에게 만수무강과 태평성대를 축원하였는데, 이것은 唐 초기 응제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奉和七夕侍宴兩儀殿應制>(칠석날 양의전의 연회에서 명을 받들어 짓다)

一年銜別怨	일 년 내내 이별의 한을 품고 있다가
七夕始言歸	칠석날이 되어야 비로소 돌아간다.
斂淚開星靨	눈물을 거두니 아름다운 보조개 열리고
微步動雲衣	사뿐히 걸으니 구름 옷이 나부낀다.
天回兔欲落	하늘을 빙 돌아 달은 지려고 하고
河曠鵲停飛	은하수 넓은데 까치는 날기를 멈춘다.
那堪盡此夜	어찌 건달까 이 밤이 다하면

復往弄殘機      다시 돌아와 베틀에 앉아야 하는 것을!

이 시는 응제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표현수법이 사뭇 달라서 응제의 형식을 빈 영물시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서두에서 칠석날이 되어 견우를 만나기 위해 나서는 직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 다음 급전직하하여 재회의 밤이 벌써 다 지나가고 이별의 순간이 닥쳐옴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 년 내내 베틀에 앉아서 이별의 한을 품고 지내야 하는 가없는 직녀의 신세를 토로하였다. 시상의 전개방식과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인데, 특히 頷聯은 직녀가 원래 星雲 중에서 생활한다는 특징에다가 얼굴에 웃는 보조개와 웃의 질감을 더해줌에 인물의 정감이 꿈인 듯 생시인 듯 더욱 아련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준다.

<大酺>	(聖恩의 큰 잔치)
毗陵震澤九州通	비릉의 진택은 구주에 통하고
士女歡娛萬國同	백성의 기쁨은 만국이 다 같다.
伐鼓撞鐘驚海上	북 치고 종 울리니 바다가 놀라고
新妝絃服照江東	새로 단장하고 고운 옷 입으니 강동을 비춘다.
梅花落處疑殘雪	매화 떨어진 곳은 잔설인가 여겨지고
柳葉開時任好風	버들잎 싹틀 때 좋은 바람에 내맡긴다.
火德雲官逢道泰	왕조의 덕과 관리들로 태평성대를 만나
天長地久屬年豐	영원히 해마다 풍년이 들리라.

‘大酺’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황제가 백성들에게 열어주는 큰 잔치를 뜻한다. 시인은 이 시에서 먼저 이른 봄날 나라의 경사와 함께 황제가 베푼어준 잔치자리를 맞은 백성들의 기쁨을 서술하고 태평성대와 영원한 풍년을 기원하였다.7)

7) 두심언에게는 같은 제목의 오언율시가 한 수 더 있는데, 다루고 있는 내용도 비슷하다.

<扈從出長安應制> (장안을 나선 수행 길에서 명을 받들어 짓다)

分野都畿列	구역은 서울과 그 주변에 줄지어 있는데
時乘六御均	황제께서 즉위하여 수레가 가지런하다.
京師舊西幸	서울에선 지난날 서쪽으로 행차하셨고
洛道此東巡	낙양 길은 이번에 동쪽으로의 순행이다.
文物驅三統	문물은 夏 商 周 三대의 것을 따르고
聲名走百神	명성은 여러 신령을 뒤쫓는다.
龍旗縈漏夕	황룡 깃발은 깊은 밤에 둘러 있고
鳳輦拂鉤陳	봉황 수레는 鉤陳星을 스쳐 지나간다.
撫跡地靈古	옛 자취를 돌아보니 산천의 수려한 기운 오래되었고
游情皇鑒新	유람의 마음에 황제의 감상이 새롭다.
山追散馬日	태평성대라서 산수를 찾아가고
水憶釣魚人	물고기를 낚는 사람은 물을 생각한다.
禹食傳中使	우임금의 음식이 환관들에게 전해지고
堯樽遍下臣	요임금의 술잔이 신하들에게 돌려진다.
省方稱國阜	사방을 순시하니 나라가 풍성하다고 하고
問道識風淳	길을 물으니 풍속이 순박함을 알겠다.
歲晚天行吉	한 해가 저무니 천체의 운행이 길하고
年豐景從親	풍년이 드니 그림자 따르듯이 친근하다.
歡娛包歷代	기쁨과 즐거움이 대대로 이어지니
宇宙忽疑春	세상이 갑자기 봄인가 여겨진다.

이 시는 두심언이 황제를 수행하고 長安에서 洛陽으로 가는 길에 지은 오언배율이다. 시인은 먼저 황제 대열의 위풍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을 묘사하고 나서, 도중에서 맞닥뜨린 수려한 경치와 민간의 순박한 풍속과 여유, 유능하고 충성스런 신하를 생각하는 임금님의 마음, 쉬어가는 곳에서 주어진 풍성한 음식 등을 다채롭게 서술하여 황제의 위용과 덕을 찬양하였다.

## (2) 寫景詩

두심언에게는 적지 않은 寫景詩가 있다. 그는 주변의 경관을 사실적



으로 묘사하면서 묘사 대상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독자들이 선명한 인상을 갖게 하였다. 먼저 그가 中宗 神龍 元年(705) 張易之 사건에 연루되어 峰州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南海亂石山作>을 보자.

<南海亂石山作> (남해의 亂石山에서 짓다)

漲海積稽天	넘실거리는 바다는 하늘에 닿아 있고
群山高業地	여러 산들은 땅 위에 높이 솟아있다.
相傳稱亂石	전하기로는 亂石이라 칭해지는 것이
圖典失其事	도서와 경전에 사적이 남아있지 않다.
懸危悉可驚	아슬하니 높아서 다 놀랄 만하고
大小都不類	크고 작은 것이 모두 서로 다르다.
乍將雲島極	순식간에 구름 섬에 도달하는가 하면
還與星河次	다시 은하수와 자리를 나란히 한다.
上聳忽如飛	위로 솟아 갑자기 날아오를 것 같고
下臨仍欲墜	아래로 굽어보면 바로 떨어질 듯하다.
朝暎施丹紫	아침 햇빛에 붉게 이글거리고
夜魄炯青翠	밤 달빛에 청록색으로 빛난다.
穹崇霧雨蓄	높이 솟아 안개비를 품고 있고
幽隱靈仙閣	어둡고 은밀하여 신령이 숨어있다.
萬尋挂鶴巢	만 길 높이에 학의 둥지 걸려있고
千丈垂猿臂	천 장 아래로 원숭이 팔 뻗어있다.
昔去景風涉	전에 떠날 때는 봄바람이 불었는데
今來姑洗至	이제 오니 삼월로 접어들었다.
觀此得詠歌	이를 바라보고 시상을 얻어 읊으며
長時想精異	오랫동안 기이한 것을 생각해본다.

두심언은 유배되어 峰州로 갈 때 湖北과 湖南을 거쳐 廣東 境內로 들어갔다. 그는 端州驛(지금의 廣東 肇慶)을 지나 동쪽으로 廣州의 亂石山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 때 지은 것이 이 시이다. 그는 굳센 필력과 고도의 표현기교를 발휘하여 亂石山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묘사하였다. 崇山峻嶺다운 높이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과 그 안의 신비한 현상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 唐代 산수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和韋承慶過義陽公主山池五首>(韋承慶의 <過義陽公主山池五首>에 화답하여)

徑轉危峰逼	길을 돌아들자 높은 봉우리가 접근하고
橋回缺岸妨	다리를 돌아 깎아지른 언덕이 앞을 막는다.
玉泉移酒味	옥 같은 샘물이 술맛을 바꾸고
石髓換梗香	돌의 정수가 벼 향기를 바꾼다.
綰霧青絲弱	안개를 묶기엔 푸른 버들가지 가냘프고
牽風紫蔓長	바람을 끌만큼 자주 덩굴 길게 늘어졌다.
猶言宴樂少	다시 말한다 잔치의 즐거움 미진하여
別向後池塘	따로 뒤에 있는 연못으로 향한다고.

이 시는 中宗 復位 후에 지어진 것으로 같은 제목의 시 5수 중의 제 2수이다. 韋承慶은 字가 延休이며 鄭州 陽武人인데, 武后 長壽(692-693) 중에 鳳閣侍郎을 지냈다. 義陽公主는 高宗의 딸로서 蕭淑妃 소생이며 權毅와 결혼하였다. 시인은 義陽公主 별장의 빼어난 경치를 특색 있게 묘사하여 이 시의 首聯은 《唐人句法》에서 모범적인 예구로 인용하였으며, 魏慶之의 《詩人玉屑》에도 보존되어 있다.<sup>8)</sup> 頸聯은 하늘거리는 푸른 버들가지와 길게 늘어진 자주 덩굴이 원래 유유했고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들이 안개에 휩싸여 바람 속에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파동적인 상태를 시인은 안개를 휘감고 바람을 당긴다는 능동적인 상태로 고쳐 씌으로써 이곳의 靑絲와 紫藤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 말려 있는 부드럽고 연약하며 의지할 데 없는 동적인 상태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었다. 이 인과관계의 은유적인 도치는 후에 율시에서 유행하는 기교가 되었다.

8) Stephen Owen 著 · 張世厚 譯 《初唐詩》 403쪽에서 재인용.

<和晉陵陸丞早春游望>(晉陵 陸丞의 <早春游望>시에 화답하여)

獨有宦游人	홀로 타향에서 벼슬 사는 사람 있는데
偏驚物候新	계절 따라 경물의 새로움에 크게 놀란다.
雲霞出海曙	구름과 놀이 바다에 출현하며 날이 밝아오고
梅柳渡江春	매화와 버들이 강을 건너며 봄이 온다.
淑氣催黃鳥	온화한 기운이 찌꼬리의 지저귀음을 재촉하고
晴光轉綠蘋	맑은 봄빛이 부평초를 푸르게 한다.
忽聞歌古調	홀연히 고상한 시 읊조리는 것을 들으니
歸思欲沾巾	고향생각에 눈물이 수건을 적시려 한다.

이 시는 시인이 武后 永昌 원년(689) 江陰에서 任職할 때 지어졌다. 이 시는 이른 봄의 회열 속에서 벗이 지은 시에 촉발된 고향생각을 묘사했는데, 이른 봄 강남의 분위기를 청신하고 수려하게 그려내었다. 이 시는 고향 그리는 마음을 묘사한 것이지만 그 속에 일종의 심후한 기조가 있다. 그와 같이 심후한 감정 기조가 수려한 경계 속에 녹아들어간 것이 아마도 胡應麟으로 하여금 “初唐의 오언율시 중에서 <和晉陵陸丞早春游望>시가 제일이다”<sup>9)</sup>라고 평가하게 했을 것이다.

<夏日過鄭七山齋> (여름날 정칠의 山齋를 방문하고)

共有樽中好	술 마시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言尋谷口來	골짜기 입구로 그대를 찾아왔네.
薜蘿山徑入	벽려와 여라 덩굴 무성한 산길로 들어가니
荷芰水亭開	연과 마름 만개한 물가에 정자가 나타났네.
日氣含殘雨	햇빛 아래 대기는 물기를 머금고 있고
雲陰送晚雷	질은 구름은 저물녘 우레를 보내오네.
洛陽鐘鼓至	낙양성에서 종소리와 북소리가 들려오니
車馬擊遲回	수레와 말을 마지못해 느릿느릿 돌리네.

이 시는 두심언이 洛陽丞으로 있을 때 낙양 근교에 있는 鄭七의 山齋를 방문하고 나서 지은 것이다. 정칠은 당시 은자였고, 시인은 이 시

9) “初唐五言律, ‘獨有宦游人’第一.”(《詩薈》內編 卷4)

에서 山齋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철과의 깊은 우정을 노래하였다. 首聯 對句 ‘言尋谷口來’는 漢代 鄭璞의 전고를 사용하여 정철의 고결한 인품을 암시하였다.<sup>10)</sup> 頷聯 對句 “荷芰水亭開”의 ‘開’는 꽃이 피었다거나 연못이 탁 트여있다는 표면적인 뜻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인의 심적 변화를 암시해주고 있다. 頸聯은 비가 금방 멎었다가 다시 또 한 차례의 비를 뿌리려고 하는 날씨의 변화, 시인이 와서 머무른 시간, 그리고 산간지대에서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날씨 현상을 짧은 시구 속에 함축시켰다. 시인과 벗의 만남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日’, ‘晚’자가 나타내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날씨 변화를 나타내는 말들로부터 심리의 변화를 연상하게 해준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평측의 활용이나 대장, 시의 결구, 경계 등을 살펴볼 때 매우 정교하여 오율 중의 성공작이라고 하겠다.

<春日江津游望> (봄날 강진에 가서 바라보며)

旅客搖邊思	변방의 나그네는 고향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고
春江弄晚晴	봄 강물은 저물녘의 갠 하늘을 희롱한다.
煙銷垂柳弱	연기 사라지니 늘어진 버들가지 가냘프고
霧捲落花輕	안개 걷히니 떨어지는 꽃 사뿐하다.
飛棹乘空下	나는 듯한 배는 하늘을 타고 내려가고
回流向日平	돌아드는 물은 해를 향해 잔잔히 흘러간다.
鳥啼移幾處	새들은 지저귀며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蝶舞亂相迎	나비는 어지럽게 춤추며 서로를 맞는다.
忽嘆人皆濁	홀연히 탄식한다 사람들 모두 탁한데

10) 鄭璞은 谷口(지금의 陝西省 醴泉縣 동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은자였는데, 皇甫謐의 《高士傳》에 의하면 “정박의 자는 子眞이고 곡구사람이다. 도를 닦으면서 조용히 지냈고 사람들은 그의 淸高함에 감복했다. 成帝의 외삼촌인 王鳳 대장군이 예로써 등용하고자 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양웅이 그의 덕을 칭송하여 ‘곡구의 정자진은 암석 밑에서 농사를 지으며 명성을 경성에 널리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堤防水至清	제방의 물은 지극히 맑구나.
谷王常不讓	강과 바다는 늘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
深可戒中盈	가득 참을 깊이 경계해야 하겠다.

中宗 神龍 원년(705)부터 2년까지 두심언은 張易之 사건에 연루되어 멀리 峰州로 유배되었는데, 이 시도 그 때 지어진 것이다. 시인은 강진 주변의 봄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유배의 고통과 울분 및 고향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 등을 표현하고 있어서 사상성과 예술성이 종합된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

### (3) 紀行詩

두심언의 기행시는 주로 그가 젊었을 때 지방관으로 근무하던 시절과 峰州로 유배되어 南行하던 때에 지어졌다. 먼저 그가 隰城縣尉로 있을 때 공무로 서북지역을 다녀오면서 嵐州城에 들러 지은 작품을 보자.

<經行嵐州>	(남주성을 지나며)
北地春光晚	북쪽 땅이라 봄빛이 늦게 찾아와
邊城氣候寒	변방의 성은 날씨가 쌀쌀하다.
往來花不發	올 때나 갈 때나 꽃은 피지 않았고
新舊雪仍殘	새 봄이 왔어도 눈이 아직 남아있다.
水作琴中聽	물소리는 거문고에서 나는 듯하고
山疑畫里看	산은 그림 속에서 보는 것 같다.
自驚牽遠役	스스로 공무가 있음을 놀라 깨닫고
艱險促征鞍	험난한 앞길에 갈 길을 재촉한다.

이 시는 두심언의 초기 시로서 현존하는 沈佺期 宋之問의 오언율시보다 이른 것이다. 嵐州城은 隰城縣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서쪽 북쪽 남쪽 삼면에 모두 산이 있어서 隰城보다 지대가 높고 기후

가 서늘한 편이라고 한다. 시인이 들릴 때는 두 번 다 봄이었는데, 갈 때는 음력 2월말경이고 돌아올 때는 3월초쯤이었다고 한다. 그때 隰城에는 이미 복사꽃이 만발하고 봄기운이 완전했는데, 같은 시기의 嵐州城은 아직도 겨울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꽃나무들이 아직 개화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같은 남주성의 경치를 생동적인 형상으로 묘사하고 나서,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이 공무 집행 중임을 깨닫고 아쉬운 마음으로 가는 길을 재촉한다는 것으로 시를 마치고 있다. 이와 같은 實景의 묘사법은 나중에 두심언 시의 특징이 되었다.

## &lt;登襄陽城&gt;

旅客三秋至  
層城四望開  
楚山橫地出  
漢水接天回  
冠蓋非新里  
章華卽舊臺  
習池風景異  
歸路滿塵埃

## (양양성에 올라)

떠돌이 나그네 되어 가을에 이르니  
높다란 성은 사방이 탁 트였다.  
초산은 땅을 가로질러 솟아있고  
한수는 하늘에 닿아 굽어 흐른다.  
관개리는 새 마을이 아니고  
장화대는 오래된 누대이다.  
習家池는 풍경이 특이한데  
돌아가는 길이 먼지로 가득하다.

이 시는 시인이 洛陽을 떠나 峰州로의 유배 길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湖北 境內로 진입하여 양양을 경유하게 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눈앞의 명승지에서 일찍이 수많은 저명인사가 생활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結句는 슬프고 가슴 아프다. 이제 유배지로 가면서 돌아갈 길을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앞길이 아득하여 의지할 곳 없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처지에서 흠먼지 가득한 것은 앞날의 험난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시인의 적막하고 쓸쓸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지만, 기상이 크고 풍격이 웅혼하여 初

唐 五律의 佳篇에 속한다.

<旅寓安南>	(여로에서 安南에 묵으며)
交趾殊風候	교지는 풍토와 기후가 특이하여
寒遲暖復催	추위는 늦고 더위는 빨리도 돌아온다.
仲冬山果熟	한겨울에 산과일이 익는가 하면
正月野花開	정월에도 들꽃이 피어난다.
積雨生昏霧	장마 비에 짙은 안개가 일고
輕霜下震雷	가벼운 서리에 거센 우레가 친다.
故鄉逾萬里	고향은 만 리도 넘게 떨어져 있어
客思倍從來	나그네 수심이 갑절로 쌓인다.

두심언은 峰州에 도착하기 전 安南에 잠시 머물었는데, 그 때 이 시를 지었다. 여기서 시인은 남방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交趾의 이역 풍광을 묘사하였는데, 北地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이곳에 왔으니 분명한 계절 변화가 없어서 다소 이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묘사가 형상감 있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 속에 깊이 배어 있어서 신선한 느낌을 준다.

<度石門山>	(석문산을 지나며)
石門千仞斷	석문은 천 길 낭떠러지로 끊어져있고
迸水落遙空	솟아오르는 물은 아득히 공중으로 떨어진다.
道束懸崖半	길은 벼랑을 중간에서 묶으며 걸려있고
橋欹絕澗中	다리는 꺾이지른 시내 가운데 기울어있다.
仰攀人屢息	쳐다보며 오르다 사람은 여러 번 쉬고
直下騎才通	급전직하하니 말 탄 이라야 겨우 지나간다.
泥擁奔蛇徑	진흙이 뱀 달리는 길을 메우고 있고
雲埋伏獸叢	구름이 짐승 숨어있는 덤불을 뒤덮었다.
星躔牛斗北	별들의 궤도는 斗宿와 牛宿의 북쪽이고
地脈象牙東	땅의 맥은 상아의 동쪽에 있다.
開塞隨行變	트였다 막히는 것이 가는 곳 따라 변하고
高深矚望同	높이와 깊이는 눈 닿는 곳마다 같게 느껴진다.

江聲連驟雨	강물 소리는 소낙비 소리에 이어지고
日氣抱殘虹	햇빛 머금은 대기는 남은 무지개를 안고 있다.
未改朱明律	밝게 이글거리는 여름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先含白露風	바람이 먼저 가을의 흰 이슬을 머금었다.
堅貞深不憚	마음 굳세면 깊어도 꺼리지 않았지만
險澀諒難窮	이 험난한 지세가 끝이 없을 것 같다.
有異登臨賞	산수를 유람하며 감상하는 것과 다른 것은
徒爲造化功	다만 자연조화의 창조의 공 때문이다.

이 시는 두심언이 江西로의 첫 번째 유배지에서 지은 것이다. 오언 배율에 속하는 이 시는 首聯을 제외하고는 모두 對仗을 이루고 있어서 그의 뛰어난 표현기교를 엿볼 수 있다. 석문산의 험난한 지세가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그런 곳을 여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하다.

#### (4) 抒情詩

두심언은 젊은 시절 지방의 하급관리로 있었을 때와 張易之 사건에 연루되어 멀리 峰州로 유배당했을 때 자신의 처지와 관련된 서정시를 여러 편 썼는데, 관직생활의 고통과 울분을 반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현실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그가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 과거시험을 보고 낙방했을 때의 심정을 서술한 다음 시를 보자.

<春日京中有懷> (봄날 서울에서의 감회)  
 今年游寓獨游秦 올해의 나그네살이는 홀로 長安에 간 것인데  
 愁思看春不當春 슬픔에 젖어 봄이 되어도 봄 같지 않다.  
 上林苑里花徒發 상림원 안의 꽃은 부질없이 피어있고  
 細柳營前葉漫新 세류영 앞의 잎은 제멋대로 새롭다.  
 公子南橋應盡興 공자는 남쪽 다리에서 웅당 흥을 다했을 것이고



將軍西第幾留賓 장군은 서쪽 저택에 얼마나 손을 머물게 했을까?  
寄語洛城風日道 낙양성의 경치 좋은 길에 말을 전하나니  
明年春色倍還人 내년에는 봄빛을 갑절로 내게 돌려주시게.

이 시는 두심언이 서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懷才不遇한 슬픔과 내년 봄에는 과거시험 합격의 소망을 이루겠다는 결의와 기대를 서술하였다. 마지막 두 구절은 雙關의 語義로 자신이 내년 봄에는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자신감을 암시하고 있다. 봄빛이 배가되어 사람들에게 돌아오리라는 착상은 올해에 낙방하여 “걱정스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봄이 봄 같지 않은” 심리에서 나온 것이다. 전체적으로 구상이 참신하고 기세가 드높으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한 편의 가작이다.

<渡湘江> (상강을 건너며)  
遲日園林悲昔游 봄날 동산 숲에서 지난날의 나들이를 그리며 슬퍼하나니  
今春花鳥作邊愁 금년 봄의 꽃과 새는 변방의 근심을 자아낸다.  
獨憐京國人南竄 가련하게도 서울 사람 홀로 남쪽으로 쫓겨났으니  
不似湘江水北流 북쪽으로 흘러가는 상강의 물과는 같지 않다.

이 시는 두심언이 峰州로 유배 가는 도중에 쓴 것으로 離愁를 묘사하였다. 시인은 湘水가 북쪽으로 흘러가는 것과 자신이 남쪽으로 유배 가는 것을 대비시켜 자신의 신세에 대한 고뇌와 슬픔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였는데, 구상이 참신하다. 시의 두 련 모두 出句와 對句가 對仗을 이루고 있지만 언어의 구사가 자연스러워 初唐 七絶의 일반적인 풍모를 대표한다고 할 만하다.

<春日懷歸> (봄날 귀향을 생각하며)  
心是傷歸望 마음이 귀향의 소망 때문에 상하여  
春歸異往年 봄이 왔어도 지난해와 같지 않다.

河山鑒魏闕	강산은 높다란 꺾문을 비추고
桑梓憶秦川	뽕나무 가래나무는 秦川을 생각나게 한다.
花雜芳園鳥	꽃과 새가 향기로운 동산에 섞여 있고
風和綠野煙	바람과 안개가 푸른 들판에서 조화로웠지.
更懷歡賞地	다시 가슴에 품는다 기쁨과 즐거움의 땅
車馬洛橋邊	洛水 다리 가의 수레와 말을.

이 시는 두심언이 峰州에 도착한 첫해 봄에 썼을 것이다. 그가 유배지에서 고향 그리는 마음을 토로한 것인데, 유배지에서 쓴 다른 시가 峰州의 경물과 기후를 묘사하면서 고향생각을 이끌어낸 것인 반면에 이 시는 상상 속의 고향 풍물을 묘사함으로써 고향생각을 한층 더 깊게 표현하였다.<sup>11)</sup> 시인은 아마도 타향의 봄 풍경을 보고 불현듯 고향의 봄이 생각나서 상심의 추억 속에 빠졌을 것이다. 추억한 것이 고향의 풍물이 아니라 지난날의 생활이어서 쓸쓸한 마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重九日宴江陰> (重陽節에 江陰에서 술을 들며)	
蟋蟀期歸晚	귀뚜라미 우는데도 돌아갈 날 늦어지고
茱萸節候新	수유를 보니 절기가 새롭게 느껴진다.
降霜靑女月	서리 내린 가을의 달빛
送酒白衣人	술을 보내준 친구의 마음.
高興要長壽	흥이 지나하여 장수를 기원하고
卑栖隔近臣	낮은 데 자리하여 근신과는 거리가 멀다.
龍沙卽此地	용사가 바로 이 땅인데
舊俗坐爲鄰	옛 풍속으로는 바로 이웃이란다.

이 시는 두심언이 武后 永昌 원년(689) 江陰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좌천에 대해 몹시 불만이었지만 “舊俗坐爲

11) 이 시에서 ‘魏闕’은 서울을 가리키지만 그가 그리워하는 곳이 제 4구에서 제시한 長安인지, 마지막 구절에서 제시한 洛陽인지는 분명치 않다.

鄰”이라고 하며 잠시 스스로를 위안한다. 그 뜻은 자신이 비록 박해를 받아 조정을 떠나왔지만 重陽節 登高宴飲의 때를 맞아 짐짓 황제 주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봉건사대부가 벼슬길에서 실의했을 때의 복잡 미묘한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代張侍御傷美人>	(張侍御를 대신하여 미인을 가슴 아파하며)
二八泉扉掩	이팔청춘에 황천의 문이 닫히니
幃屏寵愛空	침실은 텅 비어 총애하던 미인 없다.
淚痕消夜燭	눈물자국은 밤 촛불을 꺼져들게 하고
愁緒亂春風	슬픔의 실마리는 봄바람을 어지럽힌다.
巧笑人疑在	수줍은 미소 떠올라 살아있는 것만 같고
新妝曲未終	새로 단장하고 부르던 노래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應憐脂粉氣	가슴에 저미리 그녀의 연지와 분 향기가
留著舞衣中	그녀가 입던 춤옷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이 시는 두심언이 張侍御를 대신하여 그의 죽은 연인을 애도하며 쓴 것인데, 특히 頷聯의 표현기교는 음미할 만하다. 시인은 사람의 눈물과 촛농과의 비유관계와 봄바람이 걱정스런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과관계를 생략하고, 사물이 감정에 작용하는 순서를 뒤집어서 감정이 사물에 작용하여 사물의 상태 또한 감정의 힘에 의하여 바뀌게 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기교는 후대의 唐詩에 큰 영향을 끼쳤다.

##### (5) 交遊詩

두심언의 교유시는 비교적 많아서 그의 전체 시 43수 중 8수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응제시와 비슷하다. 교유시 중에서는 송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먼저 티베트 화친사로 떠나는 婁師德을 전송하며 지은 시를 보자.

<送和西蕃使>	(티베트 화친사를 전송하며)
使出鳳皇池	사신이 되어 봉황지를 나서니
京師陽春晚	경성에는 봄이 깊었다.
聖朝尙邊策	우리 조정은 변방정책을 중시하여
詔諭兵戈偃	황제께서 전쟁의 종식을 명하셨다.
拜手明光殿	명광전에서 하직의 예를 올리고
搖心上林苑	상림원에서는 마음이 동요되었다.
種落逾青羌	종족 부락은 남서의 강족을 지나고
關山度赤阪	산악은 서역의 적판을 넘으리라.
疆場及無事	전쟁터에 아무 일이 없으니
雅歌而餐飯	풍악 올리며 잔치를 열리라.
寧獨錫和戎	어찌 다만 화친의 공만 하사하시리?
更當封定遠	그 위에 응당 定遠侯에 봉하시리.

太宗 貞觀 15년(641) 唐 황실이 文成公主를 티베트에 시집보내 화친을 맺은 이후 티베트는 잠시 唐과 화평을 유지했지만, 高宗 永徽 元年(650) 松贊干布가 죽자 티베트는 다시 당의 변경을 수시로 침입했다. 급기야 咸亨 元年(670)에는 티베트가 서역 18州를 공격하여 龜茲 · 于闐 · 焉耆 · 疏勒의 四鎮을 점령했는데, 그 때 薛仁貴의 全軍이 궤멸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大非川之役’이다. 그 후 조정에서는 티베트에게 점령당한 四鎮의 수복을 노려 高宗 儀鳳 3년(678)에 李敬玄이 군대를 이끌고 西征했지만 다시 大敗하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에 監察御史 婁師德이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마침내 그를 파견하여 티베트와 화친을 맺기로 하였다. 이 시에서 시인은 婁師德이 화친을 잘 성사시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기를 축원하였다.

<送崔融>	(최유을 송별하며)
君王行出將	군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니
書記遠從征	서기가 원정길에 따라나섰다.

祖帳連河關	송별용 장막이 강가 꺾문까지 이어졌고
軍塵動洛城	군대의 대장기가 낙양성을 진동시킨다.
旌旆朔朝氣	깃발에 아침에는 북방의 한기가 서리고
笳吹夜邊聲	호드기는 밤에 변방의 소리를 불어대겠지.
坐覺煙塵掃	전란의 연기와 흙먼지 잠재울 때면
秋風古北平	옛 북평 땅에 가을바람 선들 불겠지.

이 시는 두심언이 洛陽丞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萬歲通天 元年 (696) 武三思가 거란을 토벌하러 나간 일을 반영하였는데<sup>12)</sup>, 원정에 나선 군대의 위용과 북방 전선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최용은 시인의 오랜 벗으로 출정 시 서기를 맡았는데, 그는 蘇味道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참전해서 공을 세워 입신양명하기를 희망하였다.

<贈蘇味道>	(소미도에게)
北地寒應苦	북녘 땅은 추위에 고달플 테고
南庭戍未歸	남녘 땅은 수자리에 돌아가지 못한다.
邊聲亂羌笛	변방은 피리소리 어지럽게 들리고
朔氣卷戎衣	삭풍이 거세게 불어 군복을 말아 올린다.
雨雪關山暗	눈비가 몰아쳐 산악의 요새 어둡고
風霜草木稀	바람과 서리에 초목조차 드물다.
胡兵戰欲盡	오랑개 군대와와의 전투는 끝나 가는데
虜騎獵猶肥	오랑개 기병은 사냥 덕분에 살찼다.
雁塞何時入	북방의 변세에는 언제 들어가려나?
龍城幾度圍	용성은 몇 번이나 에워쌌던가?
據鞍雄劍動	말 위에 올라타서 보검을 휘두르고
插筆羽書飛	붓을 꽂아 긴급문서를 날아가게 한다.
輿駕還京邑	수레를 몰아 서울로 돌아오니
朋游滿帝畿	나들이 나온 벗들이 도성 주위에 가득하다.
方期來獻凱	때맞추어 와서 개선의 공을 바치니
歌舞共春輝	가무가 봄빛과 함께 어울렸구나.

12) 이에 관한 기록은 《通鑑》 卷205에 보인다.

高宗 調露 元年(679)에 西突厥의 十姓可汗 阿史那都支와 別帥 李遮旬이 티베트와 연합하여 唐의 安西 지방을 침입하였다. 7월에 裴行儉이 군대를 이끌고 토벌하러 갈 때 蘇味道가 管記로 따라가게 되자 두 심언이 종군 중에 있는 벗을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아득하게 펼쳐진 변세의 景色을 묘사하는 한편 소미도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길 격려하였는데, 필력이 굳세고 意境이 雄渾하다.

<秋夜宴臨津鄭明府宅> (가을 밤 臨津 鄭明府宅에서의 연회)

行止皆無地	다니건 머무르건 의탁할 땅 없는데
招尋獨有君	부르거나 찾는 이는 오직 그대뿐.
酒中堪累月	술 마시며 여러 달을 건디어내고
身外卽浮雲	몸 밖의 일은 뜬구름처럼 부질없는 것.
露白宵鐘微	이슬 맑은데 밤 종소리가 정적을 깨고
風清曉漏聞	바람 맑아 새벽 물시계 소리 들린다.
坐攜餘興往	좌중의 여흥을 몸에 지니고 떠나니
還似未離群	아직 벗들과 헤어지지 않은 것 같네.

이 시는 永昌 원년(689) 그가 江陰에 있을 때 지어졌을 것이다. 시인은 여기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심사를 표현하였다. 시인은 그와 같은 심사와 맑은 경계를 융합시켜 먼저 그들 사이의 우정을 서술하고 난 다음 그들이 새벽에 깬 때까지의 밤의 경과와 평상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통일성 있게 묘사하였다. 이것이 아마도 胡應麟이 두심언의 심사와 경계를 두고 말한 “高華雄整”일 것이다.<sup>13)</sup>

<贈蘇綰書記>

13) “唐初無七言律，五言亦未超然。二體之妙杜審言實爲首唱。五言則‘行止皆無地’‘獨有宦遊人’，排律則‘六位乾坤動’‘北地寒應苦’，七言則‘季冬除夜’‘毘陵震澤’，皆極高華雄整。少陵繼起，百代楷模，有自來矣。”(《詩薈》內編 卷4)

知君書記本翩翩 그대는 문서 작성이 본래 훨훨 나는 듯한데  
爲許從戎赴朔邊 어찌 종군하여 북쪽 변방으로 가시려는가?  
紅粉樓中應計日 아내가 집에서 돌아올 날 손꼽아 기다릴 테니  
燕支山下莫經年 연지산 아래서 해를 넘기지 마시게나.

이 시는 두심언의 전기 작품으로서 변방으로 부임하는 벗에게 쓴 贈詩이다. 蘇綰은 두심언과 같은 시기의 사람으로, 秘書省과 荊州 · 朔方의 軍幕에서 일했으며 관직이 郎中에까지 이르렀다. 짧은 편폭에 벗을 아끼는 마음과 빨리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여 初唐 칠언절구 중의佳作이라고 할만하다. 이에 대해 胡應麟도 “당초기의 오언절구는 王勃의 작품에서 이미 妙境에 들었다. 칠언절구는 처음으로 梁 · 陳을 변화시키긴 했지만 음률이 아직 조화롭지 않고 韻度도 여전히 결핍되었다. 오직 두심언의 <渡湘江> <贈蘇綰書記> 2수만이 마지막 두 구가 모두 對仗을 이루었고, 정교하면서도 자연스러워 풍미를 움켜질 수 있었다”<sup>14)</sup>라고 평가했다.

이상에서 두심언 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는 沈佺期 宋之問 등과 함께 則天武后 때부터 中宗 神龍 初까지 궁정에서 활약한 궁정시인이긴 하지만 그에게 應制와 궁정생활을 묘사한 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젊었을 때 과거 낙방의 고배도 마셨고,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쓰라린 경험도 했으며, 峰州로의 유배라는 좌절을 겪기도 하면서 자신의 심정과 경험을 다양하게 시로 표현하였다.

### 3. 杜審言詩의 가치와 위상

14) “唐初五言絕，子安諸作已入妙境。七言初變梁陳，音律未諧，韻度尙乏。維杜審言<渡湘江><贈蘇綰>二首，結皆作對，而工致天然，風味可掬。”(《詩薈》 內編 卷6)

두심언은 唐 초기의 근체시 발전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시인이다. 오언율시는 楊炯 · 杜審言 · 李嶠 · 沈佺期 · 宋之問에 이르러 이미 정형화되었다. 黏式律의 확정과 자각적인 운용은 율시 定型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두심언의 28수 오언율시는 <奉和七夕侍宴兩儀殿應制> 1수가 失黏한 것을 제외하면<sup>15)</sup> 나머지 27수는 완전히 黏式律에 부합한다. 그 중에서 19수는 全詩의 격률이 대단히 엄정하고, 8수는 각각 8구 중의 1구에서 평측이 失調하였지만 그것도 모두 제3자여서 율시의 격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sup>16)</sup> 이 28수 중에서 21수에 首句仄起不押韻式을 사용하여서 그가 이 體式에 대해 매우 익숙하고 운용에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明 許學夷는 “오언율체는 사실상 두심언 심전기 송지문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런데도 후인들이 다만 심 · 송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두심언은 심 · 송에 비해 다시 俊逸하다고 칭해지며, 체제가 엄정하고 언어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그 기상과 풍격이 자유자재여서 역시 율시의 정종이다.”<sup>17)</sup>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오언율시는 두심언에 의해서 일종의 정형화된 체식으로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칠언율시는 3수가 있는데, 그 중에 <春日京中有懷>는 失黏이 있고<sup>18)</sup>, 나머지 2수는 전부 율격에 맞아 칠언율시가 그의 시대에 이미

15) 이 시는 頷聯 對句의 ‘微步動雲衣’와 頸聯 出句의 ‘天回兔欲落’이 失黏하였고, 頸聯 對句의 ‘河曠鵲停飛’와 尾聯 出句의 ‘那堪盡此夜’가 失黏하였다.

16) 두심언의 오언율시 28수 중에서 제3자의 평측이 失調한 것은(乙種拗) 모두 8구에 나타나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전부 ‘평평**측**측측’(b식)으로 해야 할 것을 ‘평평**측**측측’으로 한 것들뿐이어서, 이는 시인의 의도적인 평측 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除夜有懷>시 頷聯 出句 ‘冬氛戀虬箭’의 평측이 ‘평평**측**평측’으로 子類特殊形式을 이루고 있다.

17) “五言律體實成于杜、沈、宋，而後人但言成于心宋，何也？審言較沈、宋復稱俊逸，而體自整栗，語自雄麗，其氣象風格自在，亦是律詩正宗。”(《詩源辯體》 卷 13)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체시 방면에서 두심언의 성취는 오칠언율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의 排律과 絶句도 특색이 있다. <贈蘇味道> <贈崔融二十韻> <度石門山> <春日江津游望> 같은 排律은 初唐詩 중에서 비교적 잘된 작품이다. 특히 오언배율 <和李大夫嗣真奉使存撫河東> 40韻은 ‘先’운으로 一韻到底하여 단숨에 내달았다. 전고의 사용이 자연스럽고 末聯 외에는 모두 對仗이 정교하여 그의 시적 재능이 뛰어난을 알 수 있다. 두심언에게는 또한 칠언절구가 3수 있다. <贈蘇綰書記>는 변방으로 부임하는 벗에게 쓴 贈詩이고, <渡湘江>은 남쪽으로 유배가는 자신의 심경을 쓴 것이고, <戲贈趙使君美人>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의 장식과 자태를 묘사하였다. 세 시 모두 완곡하면서도 정이 면면히 이어지게 묘사하였고, 평측과 압운에 있어서도 칠언절구의 격식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다.

則天武后로부터 中宗까지의 궁정문인들 가운데 杜審言은 宋之問 · 沈佺期和 함께 비교적 수준이 높은 세 명의 시인이었다. 그들의 주된 업적은 우선 初唐 이후로 시가가 경물을 묘사하고 사물을 노래함에 있어서 모두가 똑같이 따라하던 齊 · 梁의 틀에서 벗어나 문자와 문구에 대한 퇴고를 통하여 對仗의 개괄력과 文意의 포용력을 향상시켰고 시의 착상과 造境 방면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개척하였다는 점이다.

武德 貞觀 이래로 궁정에서 응제하여 사물을 노래하거나 관료문인들이 술자리에서 증답하여 지은 시 가운데는 비록 청아한 시구들이 적지 않으나 거의 새로운 구상이나 진실되고 절실한 느낌 없이 모두가 똑같

18) 이 시의 首聯 對句 ‘愁思看春不當春’과 頷聯 出句 ‘上林苑里花徒發’이 失黏하였고, 頸聯 對句 ‘將軍西第幾留賓’과 尾聯 出句 ‘寄語洛城風日道’가 失黏하였다.

이 대구나 일반적인 경물을 나열하는 평범하고 단조로운 결구들이며 대구의 변화도 아주 적었다. 후에 上官儀 · 崔融 · 吳兢 등이 새로운 대구 10여 가지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당나라 초기의 단조롭고 케케묵은 국면에 대한 불만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시어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對仗 종류의 변화를 고려했고, 구상이나 격조 경지 등 더욱 중요한 예술적 요소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杜審言과 沈 · 宋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율시 시구의 조성방법을 한 걸음 크게 앞으로 추진시켰다. 두십언의 새롭고 독특한 점은 그가 사물과 감정 사이의 상호작용에 눈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賦得妾薄命>시의 “새 울음소리에 단꿈은 깨어지고, 홀날리는 꽃이 외로운 슬픔을 교란시킨다”(啼鳥驚殘夢, 飛花攪獨愁)는 버림받은 여인의 꿈이 봄에 우짖는 새 소리에 놀라 깨면서 그녀를 지나간 추억 속에서 깨어나게 하고, 또 떨어진 꽃잎들이 이리저리 날리는 모습이 그녀의 걱정스런 심사를 어지럽힌다는 내용을 낙화와 수심이 서로 교란하는 관계로 전환시키고, 하나의 ‘攪’자로 수심을 마치 홀날리는 낙화와 같이 잡다하고 두서없는 유형의 사물로 만들었다. 齊 · 梁의 사고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그의 돌파구는 사물과 감정 사이의 비유관계를 생략하고 사물과 감정이 직접 작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물 형상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진수를 전할 수 있는 동사를 빌려 그로써 묘사하기 어려운 감정의 형태를 전달하였다. 또 <代張侍御傷美人>시의 “눈물자국은 밤 촛불을 꺼져들게 하고, 슬픔의 실마리는 봄바람을 어지럽힌다”(淚痕消夜燭, 愁緒亂春風) 역시 사람의 눈물과 촛농과의 비유관계와 봄바람이 걱정스런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과관계를 생략하였다. 다른 점이라면 사물이 감정에 작용하는 순서를 뒤집어서 감정이 사물에 작용하여 사물의 상태 또한 감정의 힘에 의하여 바

뛰게 한 것이다. 이밖에 그의 경물묘사는 경물의 움직이는 상태와 경지, 분위기와 조화에 주목하여 되도록 진실하고 절박하게 어떤 주된 인상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和韋承慶過義陽公主山池五首>(其2)의 “안개를 묶기엔 푸른 버들가지 가냘프고, 바람을 끝만큼 자주 덩굴 길게 늘어졌다”(綰霧青絲弱, 牽風紫蔓長)도 하늘거리는 푸른 버들가지와 길게 늘어진 자주 덩굴이 원래 유유했고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들이 안개에 휩싸여 바람 속에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피동적인 상태를 시인은 안개를 휘감고 바람을 당긴다는 능동적인 상태로 고쳐 씌으로써 이곳의 靑絲와 紫藤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 말려 있는 부드럽고 연약하며 의지할 데 없는 동적인 상태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었다. 蕭綱의 “연사가 옆에서 손목을 감아쥐고, 마름이 멀리서 옷을 당기네”(荷絲傍繞腕, 菱角遠牽衣)와 비교해본다면 두심언의 시는 재치 있고, 소강의 시는 사실적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가 경물을 묘사함에 있어서 齊 · 梁을 능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和康五庭芝望月有懷>의 “안개에 씻겨 맑은 빛 고달프고, 바람에 나부껴 흰 그림자 싸늘하다”(霧濯淸輝苦, 風飄素影寒)에서는 달빛과 그림자에 대해 묘사하면서 사람이 가을 밤 달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바람의 차가움과 안개 이슬의 축축함을 융합시켜 독자로 하여금 시인과 같은 경지에서 달밤의 맑고 차가움과 축축함을 느끼게 하였다. 또 <夏日過鄭七山齋>의 “햇빛 아래 대기는 물기를 머금고 있고, 짙은 구름은 저물녘 우레를 보내오네”(日氣含殘雨, 雲陰送晚雷)는 여름날 소나기가 지나간 후 해가 나왔으나 또다시 한 차례의 소나기가 올 것 같은 날씨를 묘사한 것인데, 산채가 폭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청량한 느낌을 지극히 톡톡히 그려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두심언의 경물묘사가 세밀하고 정교한 구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 광활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和晉陵陸丞早春游望>시는 생각이 참신하고 기상이 웅대하면서 화려하다. 명구로 알려진 “매화와 버들이 강을 건너며 봄이 온다”(梅柳渡江春)는 특히 신선한 느낌을 주며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강북은 봄이 늦게 오고 강남은 봄이 일찍 찾아오니 지금 강북에 피어난 매화와 버들은 봄이 강을 건너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문자적인 평가나 뜻풀이 역시 이 시가 사람에게 주는 직감적 시상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이 시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율시가 시구나 境界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미 단순하게 사물에 형상을 부여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상징하며, 확실하고 합당한 산문언어 형식으로 그 의미를 전부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吳均의 “봄은 어디서 올까? 수면을 스치며 다시 매화를 놀라게 한다”(春從何處來? 拂水復驚梅)와 비교해보면 두심언의 이런 구상은 시구에 거대한 용량과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한 만남”의 취미를 부여하였고, 이는 단지 사물의 묘사에 새로움을 더하는 것만으로 뽑내는 齊 · 梁의 시와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 외에도 두심언의 칠률 <春日京中有懷>도 구상이 참신하고 기세가 드높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한 편의 가작이다. 마지막 두 구절 “낙양성의 경치 좋은 길에 말을 전하나니, 내년에는 봄빛을 갑절로 내게 돌려주시게”(寄語洛城風日道, 明年春色倍還人)는 쌍관의 語義로 자신이 내년 봄에는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충만한 자신감을 암시한다. 봄빛이 배가되어 사람들에게 돌아오리라는 착상은 올해에 낙방하여 “걱정스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봄이 봄 같지 않은” 심리에서 나온 것이다. 교묘한 구상이나 표현이 원만하고 매끄러우며 격조가 높다.<sup>19)</sup>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두심언은 沈佺期 · 宋之問과 함께 율시의

형식을 완성시킨 동시에 齊 · 梁 시기부터 내려오던 습관적 사유방식을 깨뜨리고, 율시의 구조를 평면적인 대구의 나열에서 보다 함축 세련되고 구상이 정교한 구조로 전환시켰다. 이는 盛唐 시기 율시 구조의 형성과 시의 경지를 넓히는 데 중요한 계몽의 의미를 갖는다.

#### 4. 結語

武后에서 中宗 시기에 활약한 궁정문인 중에서 杜審言은 주목을 받을 만한 시인이었다. 그는 한때 沈佺期 · 宋之問 등과 함께 궁정에서 활약하며 여러 수의 응제시를 쓰긴 했지만 그의 주된 성취는 궁정시에 있지 않다. 그는 모두 43수의 시를 남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응제시와 궁정생활을 묘사한 시 외에 寫景詩, 紀行詩, 抒情詩, 交遊詩 등이 있어서 그가 궁정시 외에도 다양한 제재와 내용의 시를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들의 내용이 개인의 부침과 득실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봉건사회 속에서 지식인의 운명과 사상 감정이 어떤 면모를 보이는 지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두심언 시의 가치와 위상에 있어서 먼저 언급할 것은 그가 심전기 송지문과 함께 율시의 격률 완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沈 · 宋 두 사람은 元兢의 換頭術을 실천에 옮기며 ‘律’로 받들면서 다른 시인들로 하여금 다투어 그 ‘律’을 준수하게 만들어 中宗 神龍 · 景龍 중에 널리 기풍이 되게 하였지만, 두심언은 이들에 앞서서 李嶠 · 崔融 등과

19) 이상 율시 시구의 조성방법에 대해 두심언이 행한 공헌에 대한 서술은 葛曉音 <論宮廷文人在初唐詩歌藝術發展中的作用>(《詩國高潮與盛唐文化》 北京大學出版社, 1998) 37-40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함께 이미 換頭術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근체시의 律化水準을 크게 향상시켰다.

두심언은 격률과 형식 방면에서 율시의 성숙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련된 意境과 정교한 구상 등 예술기교 방면에서 唐詩의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그는 풍부한 상상력과 문체에 대한 제어력과 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시인이어서 盛唐詩의 발흥을 위해 예술창작 경험을 제공하였다. 두심언은 또한 율시 造句의 구상을 크게 진전시켰다. 그는 심전기 송지문 등과 함께 齊 · 梁 이래의 습관성 구상을 돌파하여 율시의 결구를 단조로운 나열식 대우로부터 함축적이면서도 간결하며 구상이 정교해지도록 하였으며, 각종 시체의 형식과 언어 풍격 등의 방면에서 유익한 탐색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그의 시는 시어의 선택과 결합에 있어서 뛰어난 기교를 발휘하여 발상의 전환을 이룩한 것이 적지 않다. 두심언의 손자(次子 杜閑의 아들) 杜甫는 일찍이 그의 조부를 찬양하여 “내 할아버지의 시는 옛날에 으뜸이었다”<sup>20)</sup>라고 하였고, 또한 “시는 우리 집안의 일이다”<sup>21)</sup>라고 했으니, 이로부터 두보가 두심언을 높이 평가하고 학습했음을 알 수 있다.

두심언이 후세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아서 杜甫를 비롯한 많은 당대 시인들이 율시의 구상과 배치 및 造語 방면에서 두심언의 시를 학습하였고, 宋代의 黃庭堅 · 陳振孫과 明代의 胡震亨 · 胡應麟 · 許學夷 등은 모두 두심언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체시 발전사에서 두심언이 이룩한 공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심언은 근체시 창작에 전력을 기울인 중요한 시인이므로, 그의 오칠언율시와 칠언절구는 엄정하게 근체시의

20) “吾祖詩冠古.”(<贈閻丘師>)

21) “詩是吾家事”(<宗武生日>)

격률에 부합하여 黏式律의 확립과 자각적 운용에 이바지하였다. 둘째, 그의 작품은 시풍이 渾厚하여 후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의 壯闊하고 雄渾한 시풍은 초당 시가의 신속한 轉化를 촉진하여 六朝의 積習을 교정하고, 美辭麗句와 典故의 多用을 다투는 국면을 타파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셋째, 두심언의 몇몇 사작기교는 후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음률과 감정을 곡절 있게 조직하며 대우를 운용하는 수법과 경물의 전형적인 특징을 포착하여 씩진하게 묘사하는 기교와 결구를 엄밀하고 짜임새 있게 하며 字句를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수법 등을 발전시켰다.

太宗 貞觀(627-649)으로부터 景龍(707-709) 시기까지 궁정시풍의 발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궁정문인들의 작품도 初唐詩歌史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창작경향이 비록 初唐四傑 · 陳子昂 등의 혁신파와는 많이 다르지만 절대적인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武后 때의 궁정시인이 龍朔詩人에 비해 더욱 강렬한 공명의식과 출세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龍朔詩人의 현존 작품은 대부분 歌功頌德의 작품이고 言志述懷의 작품은 비교적 적지만, 武后 때의 궁정시인은 궁정시 외에도 자신의 심정을 서술하고 토로한 서정시와 지방생활과 유배생활을 통해 경험한 寫景詩와 山水詩 등을 많이 남겼다. 따라서 盛唐詩人 功名意識의 형성과정과 盛唐風骨 예술연원을 탐색할 때 初唐四傑과 陳子昂에게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武后 · 中宗朝의 궁정시인들도 보편적으로 강렬한 공명의식과 출세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 그들의 창작도 盛唐 詩歌 風骨의 형성에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정치나 인사 문제에서 복잡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가 창작에서도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었다. 당시 발전의 각도에서 볼 때 그

당시 궁정시 중의 雅音이 혁신파의 인정을 받은 것이 사실은 오히려 시가의 정체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두심언이 심전기 · 송지문 등과 함께 예술표현에서 이룩한 변혁은 初唐 이래 齊 · 梁의 유풍에 대한 돌파이기도 하고, 또한 四傑과 陳子昂 등 혁신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것이기도 하다.

### 參考書目

- 清 彭定求外 《全唐詩》 中州古籍出版社：鄭州, 1996
- 湖南師範學院中文系古代文學教研室編 《中國歷代作家小傳 · 杜審言小傳》 湖南人民出版社：長沙, 1981
- 羅宗強 · 郝世峰 主編 《隋唐五代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北京, 1990
- 喬象鍾 · 陳鐵民 主編 《唐代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北京, 1995
- 葛曉音 《詩國高潮與盛唐文化》 北京大學出版社：北京, 1998
- 杜曉勤 《初盛唐詩歌的文化闡釋》 東方出版社：北京, 1997
- 楊世明 《唐詩史》 重慶出版社：重慶, 1996
- Stephen Owen著 · 張世厚譯 《初唐詩》 中문출판사：대구, 2000
- 吳文治 主編 《明詩話全編》 江蘇古籍出版社：南京, 1997
- 김준연 《당대칠언을시연구》 도서출판 역락：서울, 2004
- 徐定祥 <關於杜審言詩歌的評價>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4年 第二期增刊)
- 徐定祥 <“文章四友”和盛唐邊塞詩>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8年 第四期)
- 姜光斗 · 顧啓 <論杜審言近體詩的歷史地位> (南通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87年 第三期)
- 송용준 <沈佺期詩研究>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제46집, 2006년 2월)